



# 81年度 韓電(株)의 經營指標

金 榮 俊

(韓國電力株式會社 社長)

지난 1年은 우리나라가 政治 및 社會的으로 대단히 어려운 變化와 試鍊을 겪었을 뿐 아니라 經濟的으로는 이른바 減量經濟의 衝擊과 設備投資의 不振 등으로 지금까지의 高度經濟成長史에서 처음으로 「不況의 늪」을 맞이한 한 해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電力事業 또한 세 차례에 걸친 燃料代引上和 電力需要의 減退 및 收入의 減少 그리고 換率 및 利率의 上昇에 따른 元利金負擔加重과 資金梗塞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企業環境을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不利한 經營與件下에서도 韓電은 지난 1年동안 131만kW의 電源을 新規로 擴充하였을 뿐 아니라 熱效率과 電力損失率 및 當期純利益은 計劃을 훨씬 超過達成하는 등 우리가 지난 年初에 目標하였던 모든 計劃事業을 蹉跎없이 훌륭히 成就함으로써 더없는 보람으로 생각한다.

새해는 大統領과 國會議員 등 兩大選舉의 해인 동시에 第4次 經濟開發五個年 計劃의 最終目標年度이다.

그러나 國內外經濟는 지난 해를 바닥으로 새해 下半年부터는 回復局面을 맞이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으나 그 展望은 매우 流動的이고도 不透明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國際的인 石油不安은 이란·이라크 戰의 長期化 그리고 先進國의 過剩備蓄 및 지난 年末에 있었던 產油國들의 一聯의 價格引上等 國際石油需給의 不確實性을 그대로 反映함으로써 電力事業이 맞이하고 있는 經營與件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해에 韓電이 맞이한 첫번째 課題는 역시 에너지難에 對備한 脫油電源開發의 促進이다.

지난 73年度の 오일쇼크 以來 石油를 에워싼 國際情勢는 해를 거듭할수록 深刻의 度を 더하여 80年代의 特徵은 必야흐로 에너지 危機와 高油價時代로 代表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第1次 오일쇼크가 일어나기 直前인 73年 1월에 배럴당 2달러 3센트였던 國際石油時勢는 지난 해에 30달러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先進國들의 過剩備蓄이 계속될 경우 60달러로 暴騰될 것이라고 主張하는 產油國當局者가 있는가 하면 앞으로는 物量確保조차 어려울 것으로 憂慮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危機에 對備하여 이미 지난 79년부터 石油의 依存度를 줄이기 위한 脫石油化 施策을 推進하여 왔지만 올해에는 原子力 石炭, LNG, 潮力 등을 비롯하여 그

밖의 新에너지를 포함한 綜合的인 代替에너지 開發對策을 보다 強化할 것이다.

먼저 短期對策으로서는 지금까지 檢討되어 온 油類專燒發電所에 대한 LNP 및 石炭燃燒轉換計劃을 보다 果敢히 實踐에 옮기는 한편 發電設備一元化 施策으로 遲延되었던 原子力과 石炭發電所의 建設工期를 最短期日에 挽回할 수 있도록 重點的인 努力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가 하루라도 이들 非油類轉換 計劃과 建設工期를 앞당길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石油依存度を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時代의 電力供給의 根幹을 이루게 될 原子力과 石炭發電所의 新規開發을 더욱 加速化하여 이들 代替 에너지에 의한 安定供給基盤이 늦어도 90年代中에는 確立되어야 하겠으며 古里原子力1號機를 비롯하여 이미 稼動中인 石炭混燒發電所의 稼動率向上對策도 同時에 推進되어야 하겠다.

한편 有煙炭과 우라늄을 비롯한 發電燃料의 確保를 위해서는 流動하는 國際市場情勢에 即應하여 보다 伸縮性있게 能動的으로 對處함으로써 90年代까지의 物量을 지금부터 長期安定確保할 수 있도록 努力하고 있다.

原子力を 비롯하여 점차 加重되는 電源地難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地域社會開發計劃에 적극 協調할 수 있는 體制를 講究함과 同時에 弘報活動을 더욱 強化함으로써 모든 國民의 電力事業에 대한 理解增進에도 힘쓸 것이다.

두번째로 強調되어야 할 課題는 能率經營 體制의 確立이다.

82年 1月로 豫定되고 있는 韓電의 公社化에 對備하기 위해서는 組織 및 制度 全般에 걸쳐 徹底한 再檢討와 整備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油價引上을 비롯한 늘어나는 原增加要因을 内部에서 원활하게 吸收할 수 있는 對策으로서 業務의 自動化 내지 機械化

를 더욱 促進함과 同時에 行政簡素化作業의 強力한 展開로 人力과 時間의 浪費要素를 果敢히 除去함으로써 人力의 新規增員을 적극 抑制하여 原價를 節減하고 生産性的 向上을 圖謀하는데 全社的인 努力이 集中될 것이다.

세째는 需用家 奉仕活動의 強化이다.

韓電은 지난 2年을 奉仕體制確立과 定着의 해로 設定하고 發電과 送配電 등 供給施設의 補完을 비롯해서 人力과 機動力의 增強 그리고 制度의 改革 등 事故要因의 減少 및 迅速한 復舊와 需用家應待 등 學社的인 綜合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實踐에 옮겨 왔다.

그 結果 停電回數와 時間의 短縮 등 電氣質의 向上에 많은 成果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해에 政府機關民願室에 接受된 陳情內容 가운데 우리 會社의 電氣關係 陳情이 많은 部分을 차지하였다는 事實에 우리들은 마땅히 깊은 反省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다.

네째로 우리는 新時代 新秩序 確立에 보다 적극적으로 同參하고 앞장서야 하겠다.

그것은 舊時代의 그릇된 氣風을 果敢하게 清算하여 깨끗하고 서로 믿고 正義로운 새 社會와 富強한 福祉國家의 建設이 時代와 國家의 召命인 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마땅히 國民的인 同參意識과 또한 公職者로서의 높은 使命感을 가지고 이의 實踐과 具顯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召命에 대한 同參이 나 實踐이 결코 어려운 概念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國家로부터 祿을 받고 또 國家와 社會에 奉仕해야 할 公職者인 以上 우리는 언제나 確固한 國家觀과 時局觀을 가지고 깨끗하고도 정직하며 誠實하게 맡겨진 公私生活를 해나갈 때 職場淨화와 正義社會는 스스로 具顯될 수 있을 것이다.